

Session 7 Stage #4: Loving Ourselves in the Love of God

07 4 단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I. REVIEW: THERE ARE 5 STAGES TO GROWING IN LOVE

복습: 사랑 안에서 자라 가기 위한 5 단계들

- A. The foundational premise in this teaching series is that God loves us with the same intensity that God loves God (Jn. 15:9; 17:23). This quality of love is foundational to life in God's kingdom. 이 연속 강의의 기초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요 15:9; 17:23). 이 사랑의 질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의 기초적인 것이다.
-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 B. The love burning in God's heart has at least 5 expressions that are deeply interrelated. Each of these expressions represent the 5 stages of how a believer can grow in love. We seek to understand and walk in all 5 stages simultaneously since they are revealed and imparted to us by the Spirit. 하나님의 심장에서 불타고 있는 사랑은 적어도 5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각각의 표현들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5 가지 단계를 나타낸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를 계시하시고 전해주시면 이 5 단계 전체를 동시에 걸어갈 수 있다.
1. **God's love for God:** Each person in the Trinity intensely loves the others with all their heart.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안에서 한분 한분이 온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신다.
 2. **God's love for His people:** He loves His people with all of His heart, mind, and strength.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3. **Our love for God:** God's very own love is imparted to His people by the Spirit (Rom. 5:5).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 (롬 5:5)
 4. **Our love for ourselves:** We love our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5. **Our love for others:** We love others in the overflow of experiencing God's love (1 Jn. 4:19).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의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요일 4:19)

- C. **Stage 1** is to receiv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perfect love that is found in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Trinity. The Son loves the Father (Jn. 14:31), and the Father loves the Son (Jn. 3:35; 5:20; 15:9; 17:23). We best understand God's love as we consider the Trinity. Why? The way that God loves within the Trinity is the *only* way that He loves us—*He always loves in fullness*. 제 1 단계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 발견되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증가된 이해를 받는 것이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요 14:31),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요 3:35; 5:20; 15:9; 17:23). 우리가 삼위일체를 상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충만하게 사랑하신다.**
- D. **Stage 2** is to receiv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love that God has for us (Eph. 1:17; 3:18-19). 제 2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에 대해 증가된 이해를 받는 것이다 (엡 1:17; 3:18-19).
- E. **Stage 3** is to receive an increased impartation of love for Jesus. Jesus prayed that the Father's love would be imparted to us (Jn. 17:26). The Lord created us to love Him in 4 spheres of our life—our heart (affections and desires), soul (identity), mind (intellect), and strength (resources). 제 3 단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 증가된 부여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 기도하셨다 (요 17:26). 주님은 우리의 삶의 네 가지 영역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다. 그 영역은 우리의 마음(애정과 갈망들), 혼(정체성), 생각(지성), 그리고 힘(자원들)이다.
- ²⁶“...that the love with which You [the Father] loved Me may be in them...” (Jn. 17:26)
²⁶“...이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 (요 17:26)

II. STAGE #4 LOVING OURSELVES IN THE VERY LOVE THAT GOD HAS FOR US

제 4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 A. The redeemed are to love them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We will never love others more than we love ourselves by the grace of God. We are to see and love ourselves through the lens Jesus' love for us, His work on the cross, His great “investment” in us, and our great value to Him. 구속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결코 더 많이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공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큰 “투자”,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큰 가치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한다.
- ³⁹“*And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t. 22:39)
³⁹“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9)
- B. The Bible calls us both *to love ourselves* (Mt. 22:39) and *to hate our lives* (Lk. 14:26). 성경은 우리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마 22:39), 우리의 목숨을 미워하라 (눅 14:26)고 초청한다.
1. *We love who we are in Christ*—our new identity in Christ and what we do in God's will.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랑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한다.
 2. *We hate our lives*—who we are outside of Christ and what we do outside of God's will.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미워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 것과 하나님의 뜻 밖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 C. The premise of loving ourselves in God's grace is to *agree with what God sees*. He sees the eternal story of our lives in His family—not only our temporal story that is flawed with sin and weakness.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이야기를 보고 계신다. 죄와 연약함으로 결함이 있는 우리의 일시적인 이야기만을 보시지 않으신다.
- D. You are a new creation in Christ who received the gift of God's righteousness (2 Cor. 5:17, 21). You are to love the “new creation” person—in whom God delights, who possesses the Spirit, and who has a glorious destiny in God both in this age and in the age to come.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후 5:17, 21).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이 존재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소유하고 이 세대 안에서와 장차 올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데스티니를 소유한 그 존재를 기뻐하신다.
- ¹⁷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our born-again spirit] is a new creation; old things have passed away...all things have become new...²¹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for us,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 Cor. 5:17, 21)*
- ¹⁷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²¹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17, 21)
- E. Seeing ourselves with our new identity, destiny, and worth in God's love empowers us to love ourselves in God. Seeing these truths greatly changes how we feel about ourselves and our lives.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데스티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치를 가진 자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준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크게 바뀌게 된다.
- F. We are to view ourselves in terms of who we are in Christ, while acknowledging our fallenness—thus, we simultaneously love and hate our life. The gospel emphasizes our dignity in Christ yet calls us to self-denial. Clearly seeing this tension equips us to walk in love more consistently.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와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한다. 동시에 우리의 타락성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사랑하며 미워하게 된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또한 자기 부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런 긴장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로 좀더 지속적으로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 G. We love who we are in Christ and *hate* who we are and what we do outside of Christ. Thus, we rejoice in our identity and life in Christ yet deny our actions and attitudes that are contrary to Him.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행하는 것은 미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생명을 즐거워하지만, 예수님과 반대되는 우리의 행동들과 태도들은 부인한다.
- ²⁶“If anyone...does not hate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Lk. 14:26)*
- ²⁶ “무릇 내게 오는 자가...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눅 14:26)
- ²⁴“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Mt. 16:24)*
- ²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 H. We pray to see how God sees and values us as His glorious inheritance (Eph. 1:18). We love ourselves for God's sake, so that He fully receives His inheritance in our lives. I encourage all of us to pray often, "*Lord, let me see what You see and feel what You feel about my life.*"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우리를 자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한다 (엡 1:18).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자신의 유업을 완전히 받으신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주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격려한다. "주님, 저로 하여금 나의 삶에 대해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해 주세요"

¹⁷...*the Father of glory may give to you...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¹⁸*that you may know...what a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Eph. 1:17-18)

¹⁷...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¹⁸...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엡 1:17-18)

- I. Bernard of Clairvaux spoke *the blessedness of loving oneself in God and for God's sake*—that is, to be jealous to be all that He called us to be for His sake. We are not to walk in false humility that minimizes how much *He enjoys loving us* and how He wants us to *enjoy being loved by Him*. We magnify Jesus as we love ourselves in agreement with His love for us and His "investment" in us.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축복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얼마나 즐기시기를 원하는지를 약화시키는 거짓된 겸손 안에서 살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그분의 "투자"에 동의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높인다.

1. This is the reason and way to enjoy ourselves—that is, who we are in Christ.
이것이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는 이유와 방식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
2. This is one way in which God's will is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식이다.

- J. *The Lord delights in His people and enjoys loving them.* He wants us to *enjoy being loved by Him*. He delights in the person that He made us to be in His grace. He wants us to love "the person" that He loves. He wants us to enjoy how much He enjoys us—to delight in how He delights in us.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즐거워 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를 기뻐하신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기뻐하기 원하신다.

⁴*But you shall be called Hephzibah...for the LORD delights in you...*⁵*And as the bridegroom rejoices over the bride, so shall your God rejoice over you.* (Isa. 62:4-5)

⁴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⁵...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 62:4-5)

¹⁹*He delivered me [David] because He delighted in me.* (Ps. 18:19)

¹⁹나[다윗]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 18:19)

⁴For the LORD takes pleasure in His people... (Ps. 149:4)**⁴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시 149:4)**

- K. Every person was created with a longing to be enjoyed by God. Our greatest emotional need is to walk in the assurance that we are enjoyed by God, even in our weakness.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정적 필요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다.
- L. The Father enjoys His people even in the process of restoring us to relationship with Him. In Luke 15, Jesus told three parables which reveal God's personality and how He rejoices over us. The truth emphasized here is that God rejoices while restoring us (Lk. 15:4, 5, 6, 7, 9, 10, 23, 24, 32).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신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즐거워하신다. 누가복음 15 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즐거워 하시는 지를 계시하시는 세가지 비유를 말씀 하셨다. 여기에서 강조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동안에도 즐거워하신다는 것이다 (눅 15:4, 5, 6, 7, 9, 10, 23, 24, 32).
- ³²It was right that we should...be glad, for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Lk. 15:32)**
³²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눅 15:32)
- M. We magnify Jesus as we love ourselves as those who receive the riches of His grace (Eph. 2:7). We love "the person" whom Jesus loves, died for, and made new in His grace. We are to love all those whom God loves, including ourselves. We cannot not love Jesus or others well if we are overwhelmed with the "emotional traffic" of rejection, insecurities, comparisons, bitterness, etc.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자로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높인다 (엡 2:7).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만드신 "그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거절감, 불안정, 비교나 쓴 뿌리 등의 "감정적 소용돌이"로 압도당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또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
- ⁷...He might show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in His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Eph. 2:7)**
⁷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엡 2:7)
- N. The Lord wants us to enter into the feelings that He has for us so that we love ourselves in the love of God. Transformation occurs in us as we accept or agree with what He sees and feels about us.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감정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하신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보고 계시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또는 동의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III. GOD'S UNIQUE PLAN FOR EACH BELIEVER'S LIFE IS GLORIOUS

각 신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은 영광스럽다

- A. Self-hatred comes from seeing our worth and success according to the flesh,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and evaluating our lives by the values of this present evil age.

자기 혐오는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성공을 보는데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리고 이 악한 현 세대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함으로부터 나온다.

¹²*They, measuring themselves by themselves, and comparing themselves among themselves, are not wise. (2 Cor. 10:12)*

¹²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후 10:12)

- B. We repent of longing to have another's calling, gifting, family background, appearance, etc. We can imitate the dedication of godly people without wanting to have their calling or life circumstances.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르심, 은사, 가족 배경, 외모 등을 갖기 원했던 것을 회개해야한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부르심이나 삶의 환경들을 갖기 원하는 것 없이 그들의 헌신을 본받을 수 있다.

- C. We must not regard or evaluate and define ourselves according to the flesh or according to how we look or how much money, influence, or gifting we have, but see our success and value in Christ.

우리는 육신을 따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또는 평가하거나 정의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공과 가치를 보아야 한다.

¹⁶*From now on, we regard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¹⁷*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our spirit] is a new creation...all things have become new.* (2 Cor. 5:16-17)*

¹⁶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¹⁷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 새로운 피조물이라 ...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6-17)

- D. As we see who we are according to the Spirit or in God's eyes (Rom. 8:5), then we can love who we are without despising our appearance, status, gifting, or ministry assignment (even if it is small).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때 (롬 8:5), 우리는 우리의 외모나, 상태, 은사, 혹은 사역 임무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랑할 수 있다.

⁵*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Rom 8:5)*

⁵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롬 8:5)

- E. God created each of us in a unique way as His workmanship (Eph. 2:10).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자신의 작품으로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엡 2:10)

¹⁰*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to convey a message],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Eph. 2:10)*

¹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10)

- F. The redeemed are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in God's grace.

구속 받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다.

⁷You have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Heb. 2:7)

⁷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히 2:7)

- G. We trust Jesus' leadership related to the unchangeable aspects of our life—appearance, family heritage, giftings, etc. David spoke of “the lowest parts” (v.15) as a figure for his mother's womb. 우리는 우리 삶에 변할 수 없는 부분들 즉 외모, 가족적 유산, 은사들과 관련된 예수님의 리더십을 신뢰한다. 다윗은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음 받은 “가장 낮은 지체들” (15 절) 에 대해 말한다.

¹³You formed my inward parts...¹⁴I will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marvelous are Your works, and that my soul knows very well...¹⁵I was skillfully wrought in the lowest parts [mother's womb]...¹⁶In Your book they all were written, the days fashioned for me, when as yet there were none of them. ¹⁷How precious are Your thoughts to me, O God! How great is the sum...¹⁸If I should count them, they would be more in number than the sand. (Ps. 139:13-18)

¹³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¹⁴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¹⁵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 [가장 낮은 곳] 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¹⁶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¹⁷ 하나님이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¹⁸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시 139:13-18)

- H. Self-hatred results in a deep sense of rejection that damages our ability to love and receive love. The Lord desires to liberate our heart fully from self-hatred so that we do not wish we were someone else but are genuinely thankful for being who God made us to be (with our specific calling). 자기 혐오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깊은 거절감을 가져온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혐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길 원치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에 대해(우리의 특별한 부르심과 함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다.

- I. Those who love themselves according to the Spirit are not preoccupied with themselves, their limitations, or failures, but with God's will as they grow in gratitude and trust in His leadership. Those who love themselves according to the flesh are so easily preoccupied with themselves—evidence of this is being discontent and continually wanting to be someone else. 성령님을 따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제한, 혹은 실패들에 사로 잡혀 있지 않고 감사 가운데 자라가며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된다. 육신을 따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 자신에게 사로 잡힌다. 그 증거는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되기 원하는 것이다.

- J. Paul was content and even satisfied in doing God's will (Phil. 4:11; 1 Tim. 6:8; cf. Jn. 4:34). 바울은 자족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만족 했다(빌 4:11; 딤후전 6:8; 비교 문구 요 4:34).

¹¹...for I have learned in whatever state I am, to be content...¹²I have learned...to abound and to suffer need. ¹³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Phil. 4:11-13)

¹¹...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¹²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¹³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1-113)

- K. Believers who hate themselves live with so much emotional traffic that comes from being preoccupied with their image and what they think people are thinking about them. Our ability to love Jesus and others is greatly hindered by the emotional traffic related to hating ourselves. 자신을 미워하는 신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에 사로 잡혀서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간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관련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엄청난 방해로 받는다.
- L. We love ourselves without despising our appearance, gifting, and ministry assignment regardless of how small it is. We thank Jesus for who we are in Him and for the unchangeable aspects of our appearance, abilities, personality, and life circumstances—family, parents, nationality, etc. 우리는 우리의 외모나 은사, 그리고 얼마나 작은 지와 상관없이 사역의 임무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외모나 능력, 성품, 그리고 삶의 환경들 (가족, 부모님, 국적 등) 에 변할 수 없는 면들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한다.
- M. Jesus remembers and rewards every act of obedience, even giving a cup of water (Mt. 10:42). We must receive what the Word says about the activities we do in God's will—though many are small and go unnoticed by others. Most of our love and service to Jesus consists of small acts. But they move His heart, and He will reward us forever for them. 예수님은 순종의 모든 행위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준 것 까지도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마 10:42).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행위들에 대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그것이 작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부분은 작은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럴지라도 그 행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은 그것들에 대해 영원히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 ⁴²*Whoever gives one of these little ones only a cup of cold water in the name of a disciple, assuredly...he shall by no means lose his reward.* (Mt. 10:42)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 10:42)
- ¹⁷*Well done...you were faithful in a very little, have authority over ten cities.* (Lk. 19:17)
17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눅 19:17)
- N. When we know that His eyes are on us, then we do not have to strive to get the eyes of people to recognize our accomplishments, ministry, etc. We do not need to get the time and attention of powerful and popular people because we already have the attention of the most glorious Man. 우리가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취나 사역 등등을 알아 주는 사람들의 눈길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가장 영광스러운 분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얻을 필요가 없다.
- O. Our ability to love Jesus is hindered by the emotional traffic that is related to being preoccupied with our own image and what we think people are thinking about us.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감정적 소용돌이로 인해 방해로 받고 있다.